

시민단체 주도 '건강한 식습관' 운동 확산



광주 YMCA 회원들이 27일 오전 7시30분 광주 동신중학교 정문 앞에서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열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주먹밥과 건강 음료를 나눠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애들이 이젠 밥을 먹자”

광우병 공포,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확대, 이물질 가공식품까지 '밥상 걱정'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먹을거리에 대한 고민이 많은 요즘 시민단체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한 먹을거리' 운동에 앞장 서고 있다.

27일 오전 7시30분 광주 YMCA는 광주시 북구 풍향동 동신중학교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는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의 하나다. 특히 청소년들이 아침밥을 거르고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생 및 주부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YWCA 아침밥 먹기 캠페인 YMCA 공장 과자 안 먹기 식품 첨가물 유해성 교육도

50명은 새벽 4시부터 모여 주먹밥 1천 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광주 YMCA도 오는 30일까지 청소년 먹을거리에 관한 설문조사와 함께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이해와 '식품 첨가물'에 대한 유해성 등을 주제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 YMCA는 어린이스포츠타운 어린이 회원 400명과 함께 지난 24일에는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한 근린공원에서 '공장 과자 안 먹기' 서약식을 갖기도 했다.

'공장과자 안 먹기 운동' 역시 건강한 먹을거리 운동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며 ▲생명과 밀착된 먹을거리에 대한 바른 개념 형성 ▲실습을 통한 공장 과자에 든 첨가물과 색소 확인 ▲생활 속에서 공장 과자 안 먹기 등이 주요 실천 목표다.

광주 YMCA는 앞으로 어린이와 함께 공장에서 나온 과자와 가공식품에 포함된 각종 첨가물의 위험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 수업 시간 중 새우강 불태우기, 아이스크림으로 얼룩하기, 색소 사탕 끓이기, 콜라로 때 묻은 동전 닦아보기 등의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신 광주 YMCA 영유아교육담당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 같은 운동을 통해 아이들이 공장 과자와 가공식품 그리고 패스트푸드를 멀리하는 식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시 보건환경연구 '어린이 식품교실' 호응 불량식품 감별 교육 등 1천여명 참여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품교실'을 운영,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불량식품 안 사먹기'를 주제로 어린이 식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 주변 식품위생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

한 이 교실에는 현재까지 서구 화개초 등 5개 초등학교 학생 1천여명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왜 불량식품을 먹으면 안 되나', '불량식품 감별법', '식품포장지 표기사항 보는 방법' 등이다. 특히 연구원내 학습동아리인 '애들이 먹지마!' 회원들은 수년간 식품검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체 개발한 영상 교재를 활용, 호응을 얻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조선대 누리사업단과 연계 식품전공 대학생들을 참여시켜 2천여명의 초등학교생들에게 추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다양한 체험행사 시민들 공감

5·18 28돌 기념행사 종료...시국현안 부상 순수성 논란도

5·18 광주민중항쟁 제28주년 기념행사가 2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부활제' 행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당초 5·18 행사는 5월의 의미와 역사성을 알리는데 큰 비중을 뒀으나 이번 28주년 행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 대형 시국 이슈가 돌출되면서 광주가 오랫동안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5월 선언문'도 최근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반정부적 입장을 담아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행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이끈 다양한 체험행사는 오월 정신과 이념이 범국민적 시민·사회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28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5·18 순례지를 둘러보는 '역사 기행단'을 첫 모집, 3천명의 참가자들에게 5월의 역사와 상징성을 일깨워 줬다. 또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5·18 아름다운 나눔장터' 행사를 연 뒤 수익금을 이주노동자·다문화 가정 등에 전달했다.

특히 '찾아가는 영화제'에서 '식코'를 상영한 것을 비롯한 '생명의 강 체험전' '5월 정신 계승 국민대회'의 마당극 '미국산 쇠고기야 병든다' 등 굵직한 사회 현안 문제를 5월 정신 속에 담아냈다. 5·18 기념재단도 올해 처음으로 행사명을 '국제평화광프'에서 '국제평화포럼'을 바꾼 뒤 다양한 국제사회의 이슈를 이끌어내 다루는 등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는 올해 시(詩) 비석로 설치 공사를 비롯한 어린이 체험관 조성공사 등 묘지를 열린 공간으로 바꿔놨다. 올 들어 18일 현재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객 수는 31만4천3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5천명 보다 116.7% 늘었다.

그러나 한일행사·전조등 키기 운동·상무대 영장제 등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는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또 일부 행사는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빚기도 했다. 올해 예산은 3억5천600만원으로 지난해 3억7천100만원 보다 10% 가량 줄었다. '주먹밥 나누기' 예산은 1천만원, 하지만 곡물이 상승으로 재료 값이 오르면서 3만3천개(당초 3만5천개)의 주먹밥만 만들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예산 추모객들이 그림과 문구를 그려넣는 '소망의 벽' 행사를 예산부족으로 치르지 못했다.

5·18에 대한 예산지원율 30%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5월 관련 행사와 국제교류 등 각종 5월 정신선양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소년체전 대비 도로 일제정비

광주시가 올해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5월 31일~6월3일) 및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월5일~9일)에 대비해 도로 일제 정비에 나섰다.

시는 우선 저울철에 반복적으로 열고 녹아 파손된 포장 노면과 낙석, 산사태 우려지역 등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을 지난 25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정비했다.

이를 위해 시는 7천152개 노선(1천384km)에 대한 춘계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및 배수시설 등을 개선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또한 오는 9월까지 월드컵경기장 등 주변의 포장도로 51개 노선, 33km를 정비하고 차선이 퇴색된 회색로 등 4개 노선, 83km 구간은 새로 도색작업을 실시한다. 도로안내표지판 180개도 교체하거나 정비해 체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도로 정비는 소년체전 개최 전까지 6~10월 장애인체전 개최 전까지 2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시는 또 자치구 별로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해 순정비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음식물쓰레기 하수 병합처리 무산 광주시 자원화 시설 설치 등 원점 재검토

광주시가 하수와 함께 해결하려던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이 무산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악취 문제로 상무지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됐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폐쇄하고 하수처리장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서구 유덕동 제1하수처리장 안에 1일 300t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와 병합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분쇄한 뒤 하수와 함께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었다.

그러나 용역결과 하수처리장 내 소화조 용량이 절대 부족한 데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별도의 전용 소화조를 확보해야 하

는 등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새로운 입지 선정과 처리 공법 등을 모색하는 용역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말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나 주민 반발로 새로운 부지 확보도 쉽지 않은 데다 내년에는 기존 시설까지 폐쇄해야 할 형편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1일 480t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유덕동 자원화 시설에서 200t을, 광산구 송대 시설에서 150t을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30t은 외지로 위탁 처리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道公 "호남대 터널 명칭 합의편 변경 가능"

광주~무안간 고속도로의 광산구 어등산을 지나는 터널 명칭이 '호남대터널'로 확정되자 지역민들이 강하게 반발이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이해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터널명칭을) 못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명칭 재검토 가능성을 밝혔다.

도로 관계자는 27일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일(28일)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난해 결정한 호남대터널을 사용키로 했다"며 이강

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산구민 등이 명칭 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서 "광산구와 광주시, 호남대가 명칭 합의를 위해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 광산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공이 광주시 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름을 선정했다"며 "이는 터널 소재 자치단체인 광산구와 광주시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ANYCHE CHAIR

기술과 환경을 책임으로 본 복지 전문 생산업체 - ANYCHECHAIR

Empowering future and creating a double possibility

Creating the perfect working posture through professional design

흙 퍼서 장사해 40억을 번 이야기

이름 알려지지 않은 30대 과업자를 소개한 후, '흙 퍼서 장사해 40억을 번'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인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당, 제정호 프로그 실용 박-

☎ 060-700-3657

이름 알려지지 않은 30대 과업자를 소개한 후, '흙 퍼서 장사해 40억을 번'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인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